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잠언 27:17) - 잠언 속담 이야기 (테드
힐데브란트와 채트그프트 지음)**

매일 아침 6시, 학교 운동장 근처 공원 길은 두 켈레의 러닝화 소리로 활기를 띠었다. 한 켈레는 메달이 가득하고 책상에는 훈련 일지가 가득한 베테랑 마라토너 마커스의 것이었다. 다른 한 켈레는 육상 장학금을 받으려 애쓰는 투박한 고등학생 제이든의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달릴 계획이 아니었다.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공원에 온 첫날, 마커스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매일 아침 같은 루프를 따라 조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는 단호하지만 세련되지 못한 그 십대 소년이 재밌어지자 결국 속도를 늦추고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훈련 중이세요?" 마커스는 추운 어느 날 아침 스트레칭을 하던 중 물었다.

제이든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이에요. 장학금이 필요해요.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그들은 함께 달렸다. 한 명은 밀고, 다른 한 명은 쫓아갔다. 마커스는 제이든의 자세를 비판하고, 호흡 리듬을 가르쳐 주고, 승리와 패배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제이든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고, 그의 발전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

하지만 일방통행은 아니었습니다.

제이든의 갈증과 투지는 마커스에게 무언가 불을 지폈다. 그는 경쟁이 아닌,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달리는 것에 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이든과 함께 달리면서 그는 단순히 건강뿐 아니라 꿈을 좇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다시 달리기 기록을 남기고, 구간별 기록을 확인하고,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유난히 힘든 스프린트 인터벌을 마치고 돌아온 제이든은 풀밭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쁘긴 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난달보다 더 빨라졌네."

마커스가 빙긋이 웃었다. "너도 그래."

제이든은 옆으로 몸을 굴렸다. "왜 아직도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야? 벌써 그렇게 많은 걸 얻었잖아."

마커스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 당신이 날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제이든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내가?"

"네가 장학금 받으려고 여기 있지 않았으면 내가 해 뜨기 전에 전력 질주했을 것 같아? 내 안에 아직 더 많은 게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 줬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굳건해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훈련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이든은 1마일 기록을 크게 단축했고, 마커스는 마지막 트라이아웃 달리기를 위해 쪼그리고 앉아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제이든이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자 마커스는 그에게 물병을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이길 자격이 있어."

그는 장학금을 받았다. 합격 통지서를 뜯어본 날. 제이든은 다시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네가 없었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야."

"너라면 이미 알아냈을 거야." 마커스가 말하고는 웃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이렇게 빠리는 아닐지도 몰라."

그들은 아침 햇살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인생의 다른 장을 살아가는 두 주자였지만, 함께 달린 마일 덕분에 둘 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커스는 제이든에게 축하의 포옹을 건넸다. "있잖아, 속담이 있잖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날카롭게 날카롭게 했어."

제이든이 씩 웃었다. "우리 둘 다 더 강해진 것 같네."

그리고 그들이 한 바퀴 더 조깅했을 때 - 시간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정을 위해서 - 그들은 단지 더 강한 폐나 더 빠른 다리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한 걸음씩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옛 속담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잠언 27:17)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